

# 내달 與원내대표·국회의장 선출...地選 전후 권력지형 주목

8월 전대 앞두고 '의원 움직임'  
 '권리당원 표심' 가능 계기 분석  
 정청래, 地選 계기로 전국 행보  
 김민석, 여의도 복귀 시기 관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중순 새 원내대표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당내 선거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다. 여당 내 의원들의 움직임과 당심을 가늠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전대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전후로 여권 권력 지형의 변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내달 6일 원내대표 선거 이어 13일 국회의장 후보 선출

민주당은 내달 6일 차기 원내대표, 13일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다.

우선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지난 1월 이른바 '중간 계투'로 선출됐던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한 원내대표는 선거 전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 보선 때 한 원내대표와 겨뤘던 박정·백혜련 의원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자처한 전임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비교해 한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도 호흡을 잘 맞추면서 정 대표 측에서는 그를 우호적 인사로 분류하는 기류다.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는 조정식(6선)·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 등이 뛰고 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고 작년 말엔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정 대표가 지선을 앞두고 구성한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단장을 맡으며 당의 민생경제 입법 전략을 지휘하고 있다.

호남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국면에서 친명계로부터 비판받았던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조 의원이 확실한 친명계 후보 자리를 선점한 모습이어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른바 친명 및 친정(친정청래) 표심의 향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의원 표심 더해 '당심'도 주목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정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의 표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에 당심(黨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규를 개정한다.

의장 선거에서 20%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친청계·강경파 인사들이 강성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이 당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당 수석대변인으로 정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박수현 의원은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됐고,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이원택·민형배 의원도 각각 전북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 대표와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추미애 의원은 친명계

한준호 의원을 꺾고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정청래, 지선 무대로 전국 행보...송총리 당 복귀 시기 관심

원내대표 및 의장 후보 선출 뒤인 8월에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정 대표는 지선을 계기로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연임 선거 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만약 일부의 전망대로 지선에서 압승이 현실화할 경우 정 대표의 연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정 대표 측에서 나온다.

다만 정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경선 원칙을 내세우고 이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세진 것에 대한 우려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정 대표의 당 장악력이 커진 대신 지지체장이 나 지방의원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영향력 행사는 제한되면서 의원 자신의 2028년 공천에 대한 위기감도 몰물에서는 일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밝힌 김민석 총리의 여의도 복귀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여론 인사는 "8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늦어도 6월 중에는 당에 복귀해야 한다"라며 "총리직을 마음대로 놓고 나올 수가 없으니 후임 지명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달에는 여의도 복귀를 위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중동 사태가 김 총리의 향후 거취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제 비상 상황 대응으로 총리직에 당분간 발이 묶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도.

김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 총리는 총리로 지명된 순간 대통령과 함께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대통령이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또는 '내각에 남아달라'는 말을 한다면 김 총리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열린 공양간(행원당) 복원불사 기공식에 참석해 시삽을 하고 있다. <안도걸 국회의원의 일거>

## 무등산 증심사 공양간 재건 '첫걸음'

안도걸, 예산 반영 노력 결실...복원 주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지난 17일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열린 공양간(행원당) 복원불사 기공식에 참석해 공양간 재건의 첫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기공식은 화재로 소실된 공양간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사찰과 지역 불자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복원불사는 단순한 시설 재건을 넘어 나눔과 수행의 공간을 되살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화재 직후 임시 식당을 설치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국가유산청, 광주시청, 동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주도하는 등 공양간 복원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결

산위원회 위원으로 국비 건축예산신속·복원 예산(총 40억원, 2027년 추진 예산 포함)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등 사업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현장에서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안도걸 의원의 노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기공식은 없었을 것"이라며 "덕분에 복원불사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증심사는 시민들에게 쉼과 치유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공양간이 하루빨리 복원돼 많은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양간은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이번 복원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연결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지역문화공간 지원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김원이 "목포를 해상풍력산업 메카로"

전남 산업기술 R&D 라운드테이블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지난 17일 목포신항 해상풍력플랫폼센터에서 열린 '전남지역 산업기술 R&D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역기업 및 기관 간 R&D 협력 강화와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전문종 한국 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녹색에너지연구원, HD현대상호, 한국메이드,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등 전남지역 R

&D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남도, 목포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남지역 산업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RE100 국가산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을 연계하고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전용부두를 조성하더라도 설치선박과 유지보수 체계가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산업 기반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현재 추



진 중인 CTV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SOV(해상풍력 지원선) 기술 개발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상풍력 산업 확대에 따라 기업 유지와 함께 유지보수 등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각각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들을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라운드테이블의 핵심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 천하람 "전남광주 통합예산 추경 미반영...빛내서 해결하란 식"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이제는 지방재정 발령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결혼 비용은 '빛내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